고귀한 전통을 이은 천리마 작업반

종호 그림

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ВО США

3 - AUG - 9
Copy ____ 1960

화살

1959 (102) 5월호

뿌리채 뒤흔들린다

독점 자본가—에크! 이게 웬 지진이냐?
사환'군—로동자 대렬이 지나가는 소립니다

박 승히 그림

홍 종호 그림

식민지 체계는 무너져 나간다

귀 없는 초상화

백 인균 그림

—왜 귀는 안 그렸어요?
—저 분은 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분이니까……

연설로 지도를 대신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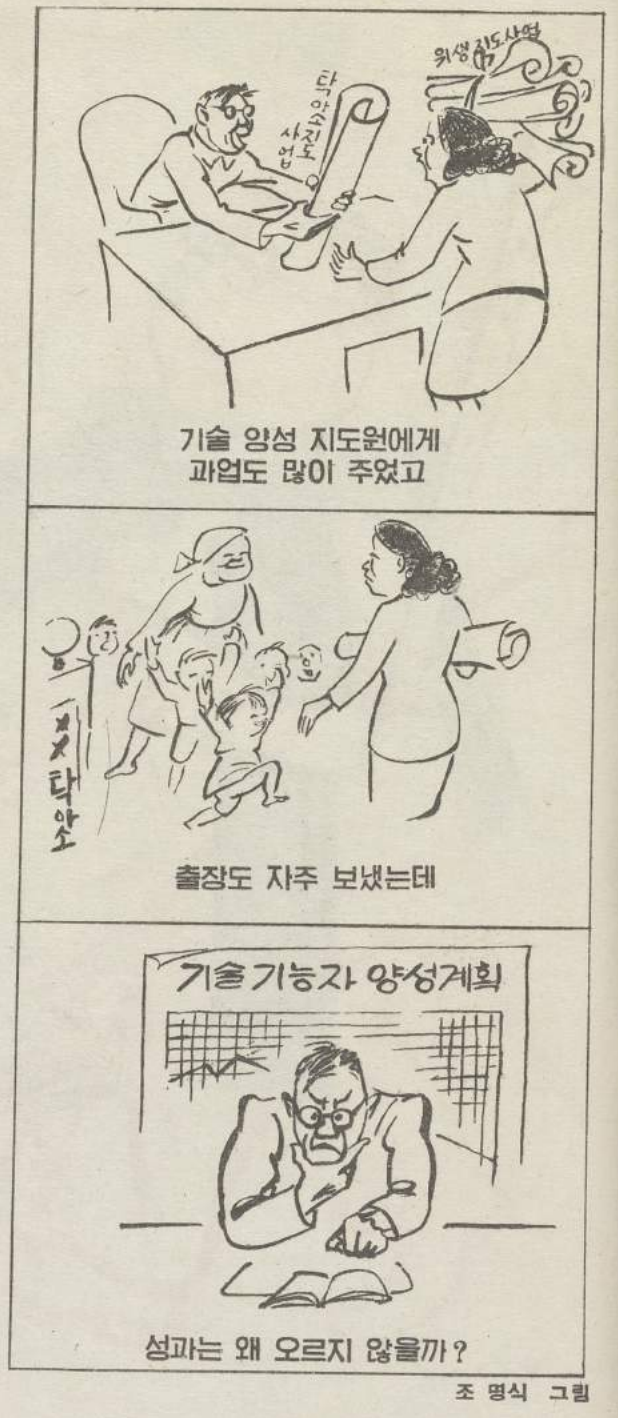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 구체적으로 지도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 동무네들끼리 적당히 하시오

지방주의자의 공작 이동

최 영근 그림

원인과 결과



기술 양성 지도원에게
과업도 많이 주었고

출장도 자주 보냈는데

성과는 왜 오르지 않을까?

조 명식 그림

석탄 공업성에서는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을 게을리 하고 있다

기계는 있건만

—보시다 싶이 우리는 설비를
충분히 리용하고 있습니다

평북일보사
허 성필 그림

사무실에서만 돌다가

평양시 동구역 대흥동 김 진호 그림

보기만 해야 할 스파이크

미술 대학 리 종길 그림

류통 부문을 통해서 듣는 손님들의 목소리

국영 제 1 백화점 부지배인실에 3층 충장 동무와 4층 충장 동무가 함께 들린 기회를 리용하여 간단한 좌담회를 열었다.

기자—여러분은 매일 수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손님들의 의견이 많은지 거기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배인—많은 상품들의 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민들의 신소를 많이 받는 상품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죽 구두인데 모양이 없고 투박하고 윤이 안나고 이런 구두나마 팔리던 때는 옛날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두를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례쯤 가는게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만드는 치솔인데 한동안 질이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요사이 도루 나빠집니다. 하두 의견이 많이 들어 와서 여기 꺾어진 치솔을 갖다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손잡이가 꺾어지는가 하면 털이 빠져서 며칠 쓰지 못하고 맙니다.

3층 충장—우리 매대에서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 섬유 생산 협동조합에서 만든 양말을 판지 몇 시간 후에, 한 손님이 물러 달라고 도루 가져 왔습니다. 세 켤레를 사 갔는데 한 켤레는 몇 시간 사이에 벌써 발 뒤축이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미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품을 만든 공장에 그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품을 갖다 판 우리의 책임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부지배인—그런 점에서 우리 판매원 동무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가방이 있습니다, 모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진 가방인데 쇠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쇠라고 하면 잠그고 열고 하게 마련인데 많은 경우에 잠겨지지 않던가 잠겨지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려 달라고 가지고 오는 손님들도 없지 않습니다.

기자—그 쇠가 실용품으로는 약하고 장식품으로는 투박하단 말씀이지요?

부지배인—네 그렇습니다.

4층 충장—메리야스, 내의류 중에서 춘추 내의는 색갈을 많이 요구하는데 백색이 많이 옵니다. 반대로 여름 내의는 백색을 많이 요구하는데 남색, 수박색이 많이 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색갈 여름 내의도 잘 팔렸지만 우리의 문화 생활이 더욱 향상되는데 따라 금년에는 색갈이 진한 여름 내의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설퍼서 며칠 입지 못하겠으니 좀 촌촌하게 짜 달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원료를 조금만 더 들여서 촌촌히 짜면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투로 원료를 《절약》하는건 절약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소매 끝이나 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고 의견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수입 해온 완피스들 가운데는 조선 녀성에게 맞지 않게 젖가슴이 반쯤 들어나게 한 것들이 있어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녀성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입해 온 모양인가 봐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짜는 스프 직물은 녀성들의 치마'감으로 인기가 있는데 치마'감으로 좋아 하는 깜한 색, 곤색, 자지색은 아주 귀하고 잘 팔리지 않는 다른 문양은 많이 나옵니다.

기자—깜한 색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흰 실은 매대마다 가득 차 있는데 깜한 실은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것은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다 같이 좀 관심을 돌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구만요.

부지배인—바늘도 그렇습니다. 바늘쯤은 하찮은 상품 같지만 어느 집에서나 다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하다 못해 독신 남성들까지도 바늘 실만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백화점에서도 바늘이 떨어지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기자—보통문 상점에서는 신이나 궤맬 막대침만 팔고 있는가 하면 제 1 백화점에서는 아주 작은 바늘 밖에 없더군요. 그러니 이렇게 누구나 다 필요한 물품인데도 작은 물건이라고 허술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배인—녀성들의 머리 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래 머리핀이야 장식을 겸하게 되는데 소소한 것이라 해서 되는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련합 직매점 매대에서 머리 핀을 파는 판매원 동무는 《이 머리 핀은 사다가 끝을 갈아서 써야 돼요》하고 쓰는 법을 가르켜 주더군요. 이런 상품들은 피리표를 달아서 되돌려 보내도록 하시지요.

3층 충장—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질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산측에 제의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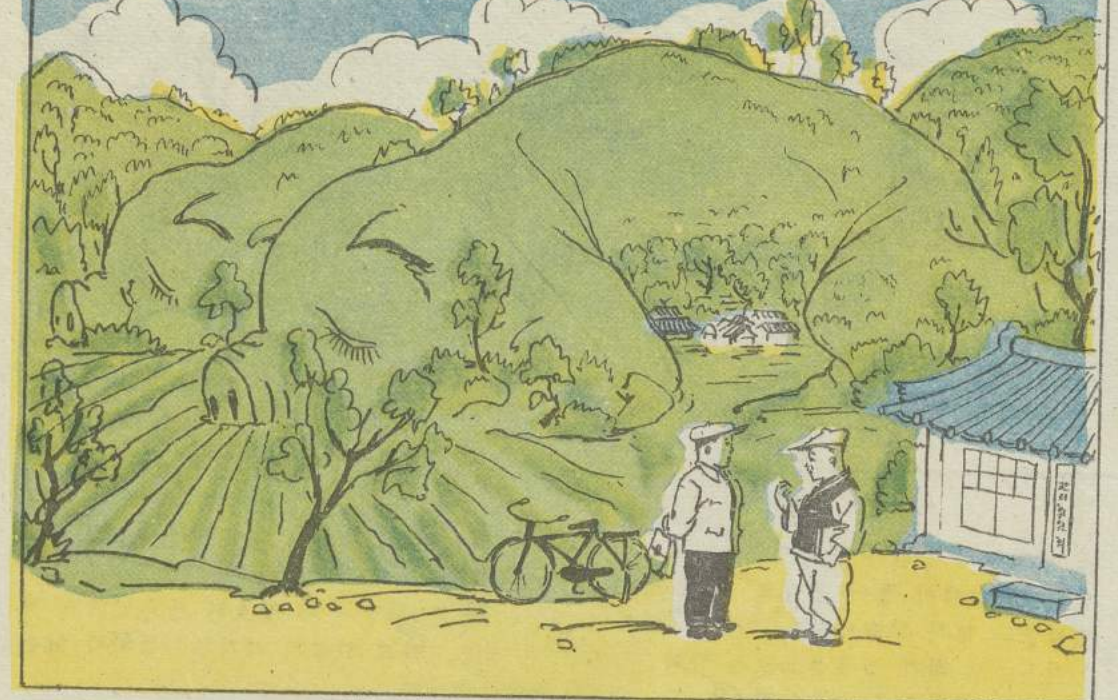
기자—바쁘신데 붙잡고 오래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상애

환영 받지 못하는 염색물

남포 유리 공장 최 장렬 그림

고기'더미 앞에서 하는 말이



—보시다 싶이 우리 산'골에서야 평지대 같이 잘 살수 있어야지요?……

허 능택 그림

갈 길은 정해 있다

리 영춘 그림

로력 조직이 잘 안된 결과에

 허 능택 그림

사모님이 ? 어떻게

리 현기 동무는《인사성이 많은》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싶다. 상부에게 하는 인사와 하부 일'군들에게 하는 인사가 각기 다른 건 물론이고 상대편의 직위나 옷차림에 따라 인사'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의 머리 속에는 용도가 각기 다른 인사'법들이 잘 분류되여 있는 듯 싶다. 가령 녀성들에 대한 태도만 하드라도 상부 일'군의 부인에 대한 것이 다르고 동료들의 부인에 대한 것이 다르다. 식당이나 상점에 가서 위생원이나 판매원에 대해서는 또한 딴 태도를 취한다. 눈낮으레 여겨서《어이 판매원》《이건 얼마야》하고 단박 해라를 하는 것쯤은 예상사다.

백화점에서 생긴 일도 그런데서 기인한 것이다. 리 동무는 열흘 전에 사 갔던 어린애의 신을 물러 달라고 갔었다. 판매원은 물러 드리긴 곤난하니 두고 가시면 팔아 드리겠노라고 하는 것이였다. 리 동무는 다시 한 번 오기가 싫었다. 또한 한편으로 그가 항상 깔보고 오느니만큼 판매원쯤 한 번 울러대면 자기 말을 들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판매원은 여전히 공손히 대답했을 뿐이고 그의 호통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고함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판매원의 대답도 자연 공손치만도 않게 되였다. 판매원들을 일상 깔보던 그의 태도가 아주 로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여 그의 언사에는《년》자가 섞이게 되고, 주위에는 구경'군이 모여 들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점잖은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저리로 가서 조용히 말씀하시지요》

한 녀성이 그를 가까스로 만류한다. 리 동무가 돌아 보니 낯익은 부인인데 옷차림을 보니 이 백화점 판매원이 분명하다. 여기로 여러번 드나들었으니까 그때 보아 낯이 익은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힐문하듯이 물었다.

《동무 누구요, 동무가 지배인이요?》

《아니예요. 전 판매원이예요.… 저어 절 모르시겠어요?!…진정하서요》

리 동무는 그 녀성의 목소리까지가 어딘가 귀에 익은 것 같아서 눈을 섬벅이고 섰느라니 그때야 생각이 났다. 이런 변이라구야!

《아, 부장님네 사모님이시군요. 사모님이 어떻게?》

김 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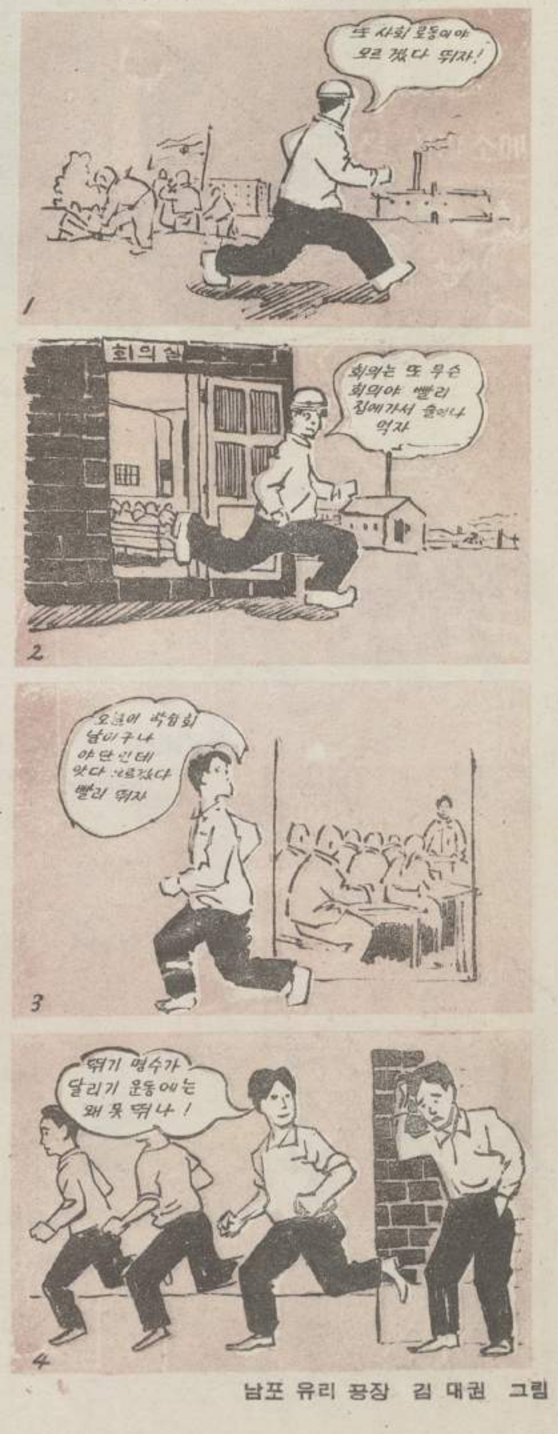
아들의 소원이건만

평남 강동 정밀 기계 공장 신 봉욱 그림

늘 듣는 고함이니까

량강도 혜산시 미술 협동 조합 오 봉학 그림

뛰여야 할 때는 못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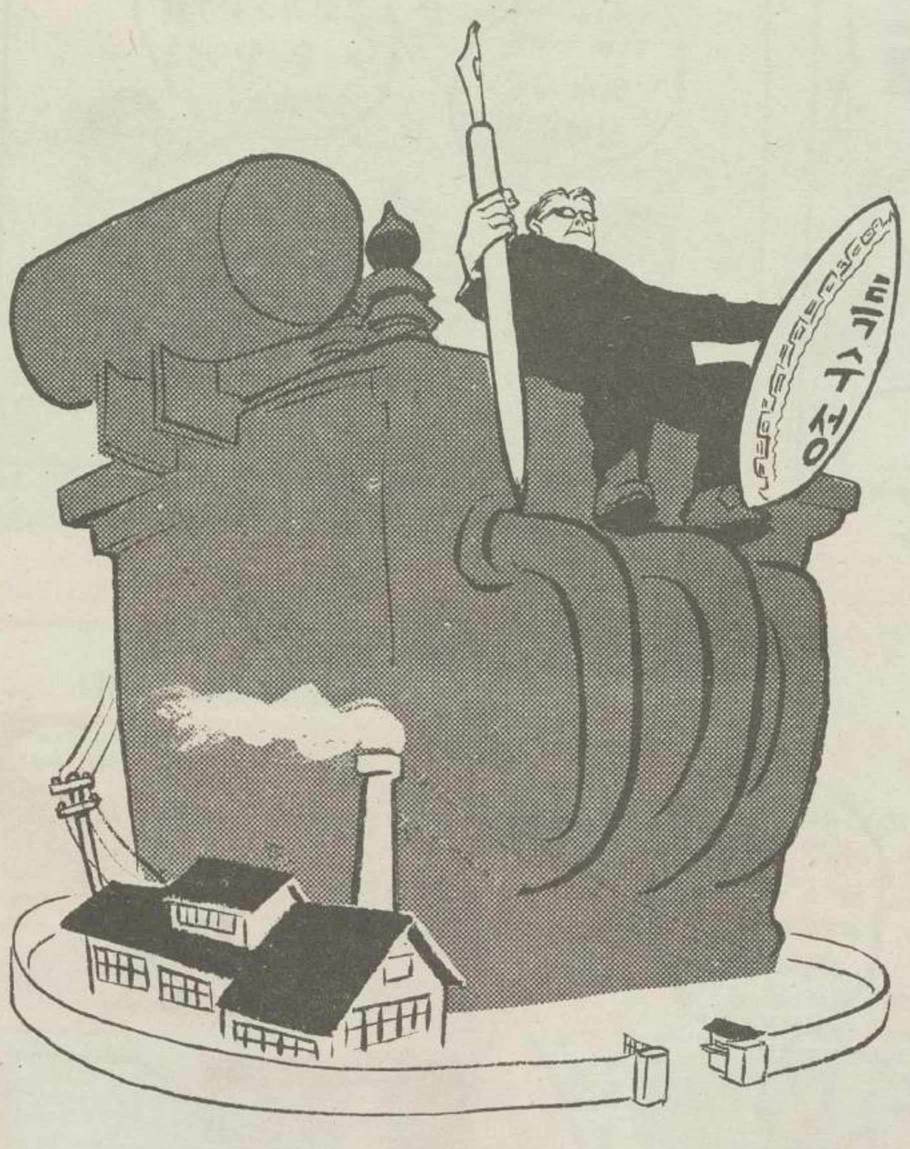


남포 유리 공장 김 대권 그림

마음은 팥죽에만 있다

함남도 단천군 직절리 심 상기 그림

유일한 방패



일부 기업소들에서 공장내 특수성만을 고집하면서 전력 절약에 무관심한 지도 일'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홍 종호 그림

강건너 불이 아니다

서평양에는 엄 무국 동무가 일하고 있는 운수부가 있다.

4월 17일 아침 서구역 전기 절약 지도 그루빠에서 나온 동무와 엄 무국 동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이 운수부에서는 전기 절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상부에 물어 보시오.

—상부에요? 상부에도 물어 보지요, 그런데 이 운수부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부장 동무가 안계셔서 모르겠는데요.

—동무는 누구십니까?

—나는 지도원입니다.

—지도원 동무는 전기 절약에 대해선 모르시는가요?

지도원 동무는 그렇게 내밀기만 해도 안될상 싶든지 그때에야

—왜 모르겠어요. 독보회도 하고 여러 번 강조도 하고, 촉수 낮은 전구로 바꾸어 끼게 하고, 이렇게 절약하고 있지요.

—그럼 작업장에 나가 봅시다.

지도원은 마지 못해 작업장으로 안내한다.

작업장에서.

—외등이 모두 열 한 개입니다. 모두 촉수 낮은 것과 바꾸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열 한 개나 되는 외등과 작업장에 모두 100 촉짜리가 끼여 있다.

—모두 100 촉인데 바꾸어 끼기 전에는 몇 촉을 쓰고 있었습니까?

—아니 바꾸어 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바꾸었나보군요…

지도원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처럼 이 운수부에서는 전기 절약은 상부에서나 또 독보회에서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전기 절약을 한갖 강건너 불 같이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평북일보사 허 성필 그림

—요런 방에 두개의 전등을 켜 놓는다는 것 은 전기 랑비가 아닐까요?

—당신의 비판을 반갑게 접수하고 시급히 시정하였습니다

깜빠니야식 써—클

남포 유리 공장 김 대권 그림

평시에는 잠 자고

공연 전엔 잘 시간도 모른다

핑게 핑게 한잔

남포 유리 공장 최 장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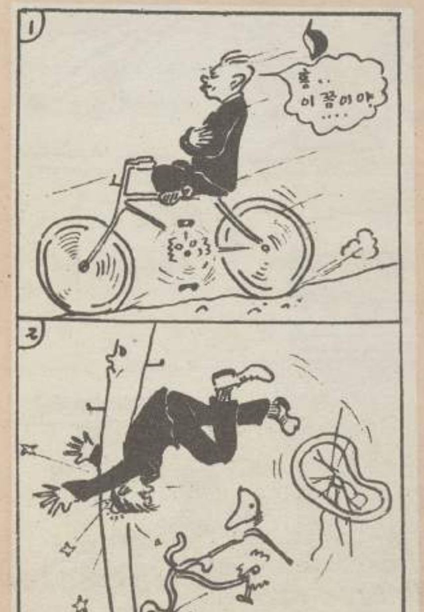
낡은 습성을 버리자!

로동자 1 —동무는 직장에 탈의실도 있는데… 왜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나?

로동자 2 —로동자인데 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가?

평양시 동구역 동평양 건재 공장 김 준욱 그림

자랑 끝에



평양시 북구역 률동 윤 평중 그림

몰라서 묻는 길이건만

량강도 혜산시 미술 협동 조합 오 봉학 그림

이런 일은 없는가?

평안남도 지방 도로 사업소 김 명섭 그림

철산광산 리발소에서

—미는 거요? 뽑는 거요?

평북도 철산 광산 직장 신문 편집부

본 받아야 할일과 고쳐야 할 일

함북도 어랑군 팔경대리 정 의준 그림

이사 가겠으니까

남포 유리 공장 김 대권 그림

봉 변

평북도 철산 광산 직장 신문 편집부

쉽게 버리고 어렵게 겪었다

 평남도 온천군 광량만 제염소 직맹 차 영환 그림

위생 검열 전후

평북도 구성 광산 기계 공장 최 섬화 그림

전제 조건

오 홍덕

한 청년이 《서울 직업 소개소》라고 쓴 간판을 힐끔 쳐다 보고 나서 호기 있게 문을 열고 들어 갔다.

《청탁이 있어 왔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자 《직업 소개소》 직원은 방문객의 아래우를 찬찬이 훑어 보더니 앉으라고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직업을 좀 구하려고…》

청년이 다시 말을 시작했으나 《직업 소개소》 직원은 신통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는 7년간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보니 직업이 없습니다. 가족은 행방 불명이 되고 갈데 올데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직업을 좀 구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허 허》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세요.》

《글세라니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나갔으니 사무원도 할 수 있고요. 급한 대목이니 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허 허》

청년은 대답도 변변히 하지 않는 데 대하여 기분이 거슬렸으나 부탁하는 처지라 꾹 참고 다시 물었다.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어떤 직업이라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말입니다.》

《제대된지 두어 주일 됩니까?》

《네 산'골짜기에 박혀 있다가 제대된지 한 주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군.》

《직업 소개소》 직원은 알만 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말이 없이 또 신문을 드려다 보고 있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길어질텐데 후일에 다시 오시지요.》

청년은 리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아니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했는가요?》

《뭐가 잘못 될거야 있습니까. 후일에 다시 올 때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똑똑히 알려 줘야 알지 않겠습니까.》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이 한참 생각다가 종이를 내 놓으면서 말하였다.

《혹시 좋은 자리가 있으면 통지하리다. 여게 수소나 적어 두시우.》

《제게 무슨 주소가 있습니까, 매일 찾아 오지요.》

《허허 야단 났군.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니 한달쯤 있다가 오시구려》

한달이라는 말에 청년은 딱해하는 표정을 하였다.

《저는 당장 급합니다. 뭐 할 일도 없으니 자주 찾아 오지요.》

청년은 재삼 부탁하고 《직업 소개소》 문을 나섰다.

청년은 그날부터 《직업 소개소》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그러나 매번 일'자리가 없다는 간단한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직업 소개소》에서는 언제나 4—5명의 직원들이 낡아 떨어진 책상 우에 걸터 앉아 고누판을 그려 놓고 왁자지껄이고 있었다.

한달이 지났다. 청년은 벌써 종종 때를 넘기는 것이 보통 현상으로 되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군데 수소문하여 직업을 얻어 보려고 했지만 어데 가도 상대조차 해 주지 않았다. 사태는 절박하였다.

헛걸음인줄 알면서도 그는 또 《직업 소개소》를 찾았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는 화투판까지 벌려 놓고 있었다. 저녁에 먹을 술내기를 하는 모양으로 한판이 끝날 때마다 한잔 벌이가 됐다고 떠들어댄다.

《젊은 친구 한판 끼여 보게.》

수염이 텁수룩한 꺼먼테 안경이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밑천이 있어야죠》

청년은 서글프게 대답했다.

《허허 구경이라두 하게. 이런 데서는 구경 값두 차례지는 법이라네.》

얼마 후 그들은 청년을 데리고 종로 뒤'골목의 빈대떡집으로 들어 갔다.

몇 잔씩 돌아간 후 꺼먼테 안경이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람 젊으니, 밑천이 없이 직업을 구하자니 뭐가 되겠는가. 공정 가격부터 알아야 하네. 보통 회사원 한 자리에 10만환, 계장 자리에 50만환, 100만환만 넘으면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아니 직업 소개소에서두 돈을 받나요.》

《허 허 이제는 그만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돈 안 받고 일 봐 주는 데가 어데 있어. 돈이 없으면 상대두 하지 않는 법이야. 직업을 구하겠으면 우선 돈을 구하게. 그리구 직업 소개소엘 오드래두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하네. 돈이 마련되면 나한테 슬그머니 내놓게, 그러면 공정 가격보다 좀 싸게 소개해 줄 수도 있네. 그래 젊은 사람이 일'자리 없어 됐는가. 자 한잔 들게.》

청년은 그제야 거리에서 욱실거리는 그 많은 실업자들이 《직업 소개소》는 상대도 하지 않는 리유를 알았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없으면 이것부터 하란 말이야》

꺼먼테 안경은 두 손'가락으로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였다. 우선 직업을 얻기 위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질부터 시작하라는 말이다.

꺼먼테 안경은 멍하게 앉아 있는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다시 말하였다.

《군대에서 배운 재간이 있지 않는가, 재간은 있는대로 다 써야 하네. 그래야 살아가는 법이야.》

사흘 후 남조선 신문들은 《제대 군인 살인 강도범 체포》라는 표제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초과 리윤과 기아 임금

조 명식 그림

삐라 사건 —남조선 경찰 일기—

최 영근 그림

류행어 만화 사전

〈번지 없는 집〉

〈나이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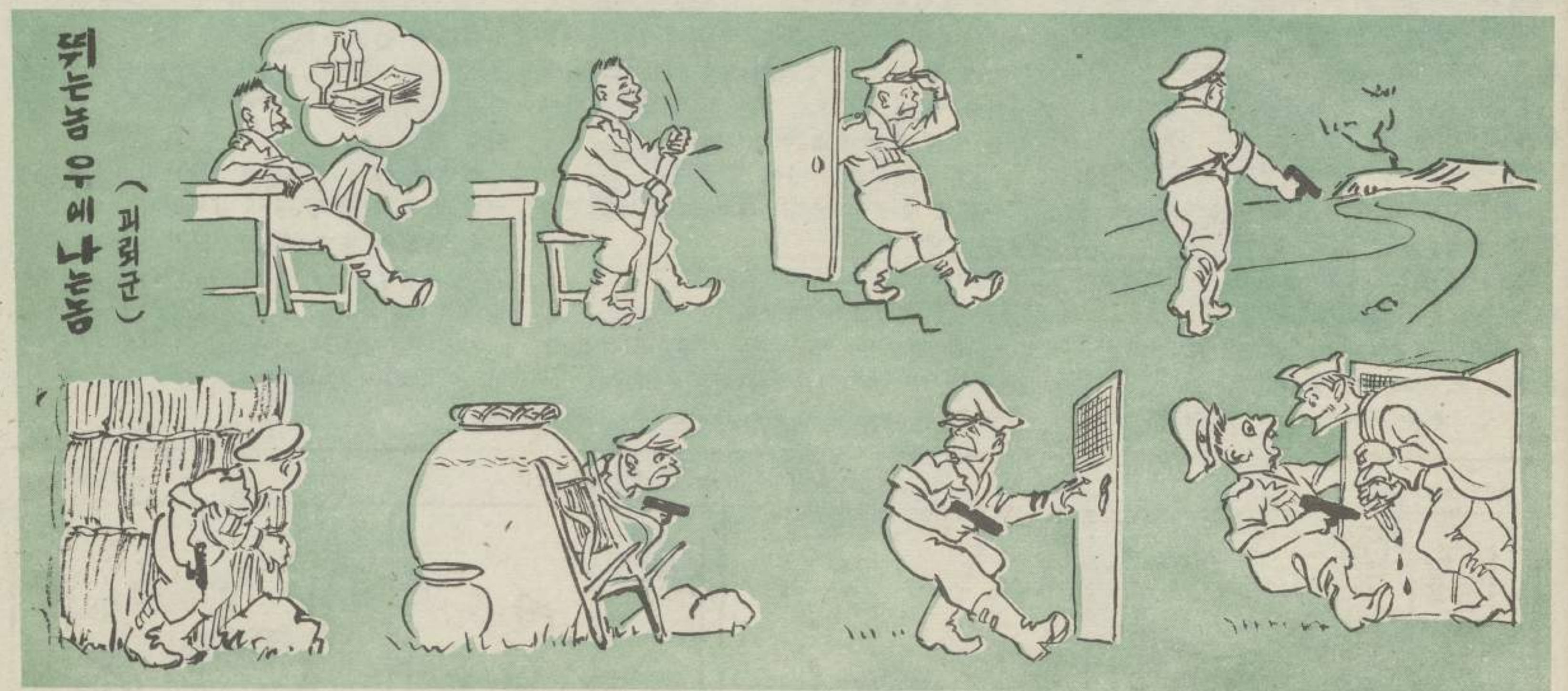
〈폭력 교육〉

백 인균 그림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승만 도배는 "미곡 증산 5개년 계획" "주택 건설 15개년 계획,, 등등 수 많은 계획을 공포했으나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러한 아무런 실현성 없는 기만적이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잡다한 계획들을 "나이롱 계획,, 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평양시 동구역 대흥동
김 진호 그림

홍 종호 그림



〈고양이 더러 반찬 지키라는 격〉

신 흥순

열마전에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 사는 김영국은 도난을 당하자 즉시 중구 경찰서 수사과로 달려 갔다.

《간 밤에 저의 집에 도적이 들어 왔댔습니다.새로 두어 시 가량이나 됐을가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내다 봤더니 아 글쎄 도적놈 두 놈이 담장을 넘어 도망을 치질 않겠습니까? 그래 뭐이 없어졌나 하구 보니까 건넌방에 있는 양복장을 싹 뒤져 갔군요.》

순경은 듣는지 마는지 책상에 엎디여 무얼 쓰노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래 그걸 좀 찾아 주십시사구 해서 찾아 왔습니다.》

그는 순경에게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도난계를 내쇼, 어? 도난계를》

《네 여기 써 가지고 왔습니다.》

순경은 도난계를 받아 들더니

《뭐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군그래? 수사비 1만 3천환을 내쇼》하며 도난계를 다시 김의 앞에 던진다.

《수사비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는 수사비를 받기루 됐어!》

《아니 경찰서에서야 의례 그런걸 찾아 주실 의무가 있잖습니까?》

《의무? 경찰이 뭐 그따우 시시헌 거나 찾아 주는 덴 줄 아는가?》

소리를 꽥 지른다.

《허지만 왜정 때두 그런 전…》

《지금 정부를 반대해서 사방 들구 일어나구 파업이다, 동맹 휴학이다, 주저 앉기요, 롱성 투쟁이요, 허구 막 항거를 하는 판에 이런 사상범두 미처 못다 잡아 들이겠는데 그따위 개인 물건 찾아 주러 댕길 새 있어?》

《그렇지만 도적놈을 잡는 거야 여기에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닙니까?》

《도난계를 내면 의례 수사비를 첨부해야만 접수 하기로 됐단 말이야!》

《그런데 1만 3천환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허어, 패두 그러네, 10만환이 넘는 물건을 찾는데 돈 만환이 아까워? 점심 값두 안되는 걸 가지구》

《그런데 제가 마침 아이 입학금 물라구 마련해 가진 것이 꼭 만환 있는데 그걸루 어떻게 안되깝쇼?》

《헤 제법 깎으러 드네? 좋와! 옌장 3천환 밀졌다》

김은 만환 뭉테기를 내여 놓고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해 본다.

《그럼 부탁합니다. 거기에도 적혀 있지만 양복이 한 벌에 치마 저고리가 세 벌 그리구…》

《다 알아!》

어서 가라는 듯이 또 소리를 지른다.

그 후 김은 매일 출근하다싶이 찾아 가서 알아 보았으나 이삼일이 지나고 사오일이 지나도 깜깜 소식이다.

《그 도난계 낸 것은 아직 모르시나요?》하고 물을라치면

《패두 성가시게 구네? 서울 바닥에 전랑 도적놈 천진데 그렇게 쉽게 잡을 말이면 걱정두 안 허겠다. 옌장!》하며 시끄럽다는 듯이 쏘아 붙이고는 자기 일만 하고 있다.

그러자 일주일이 되던날 생각도 않던 서대문 경찰서에서 도적 맞은 물건을 찾아 가라고 하는 통지가 왔다.

김은 반가운 김에 가는 길로 대뜸 감사부터 드렸다.

《순경님, 참 저의 물건을 찾아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겠습니다.》

《음 수사비 만환 내구 물건을 찾아가우》

《네 수사비는 도난계 낼 때 한꺼번에 중구 경찰서에다 물었습니다.》

《중구는 중구구 여긴 여기지, 기관이 다르구 사무 계통이 다르단 말야!》

《허지만 그것 하나 찾는데 2만환씩이나 수사비를 물구서야…》

《물건이 변변치 않으니까 만환이지 그렇잖으면 10만환 100만환이야!

그럼 수사비 내기가 아까워서 안찾겠단 말이지?》

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돈 만환을 또 작만하여 가지고 가서 물건을 찾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값진 것들은 어디로 가고 허름한 치마 저고리 몇 개 뿐이다.

《아니 왜 요것 뿐입니까?》

《음 우리가 찾아 낸 건 그것 뿐이야!》 순경은 딱 잡아 뗀다.

《들자니까 그 도적놈한테서 거의 다 나왔다면데요?》

《누가 그따우 소릴 해? 그럼 경찰이 모두 도적놈이란 말이야? 어? 다시 한 번 말해 봐!》

순경이 눈알을 부라리고 다가서는 통에 김은 입맛만 다시면서 나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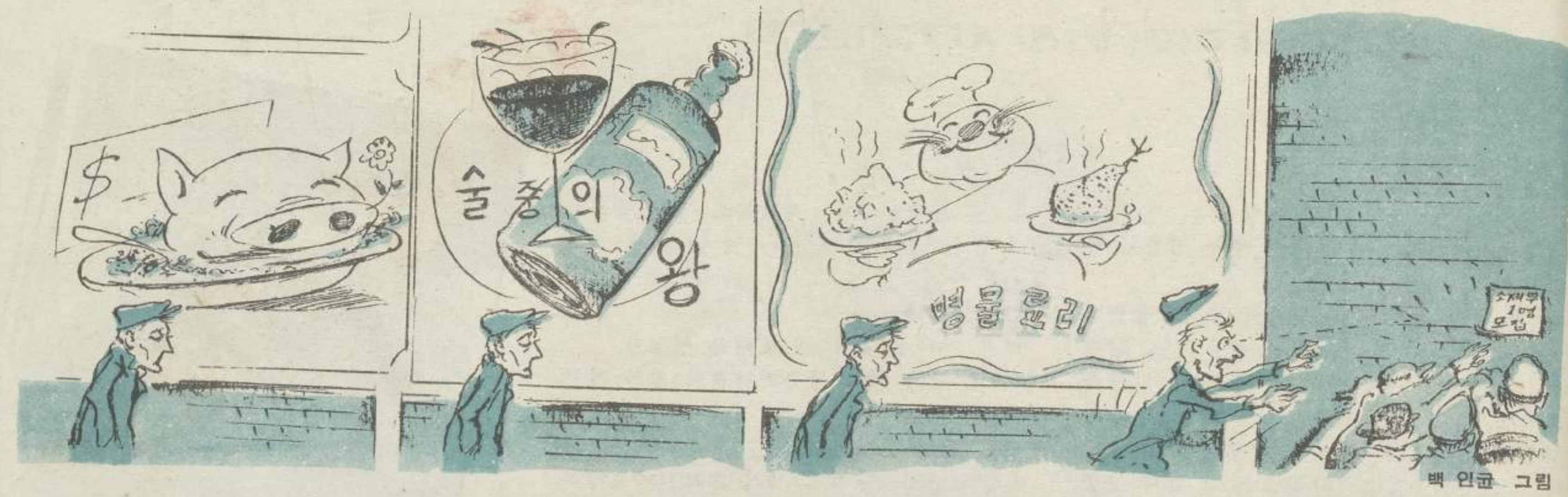
그는 경찰서 간판에다 침을 퉤! 뱉았고 나서 혼자 중얼거린다.

《고양이더러 반찬을 지키라니 이놈의 세상이 될게 뭐람! 에 얼른 어떻게 돼야지!》

남조선 도처에서

원 광수 그림

굶주린 사람을 유혹하는 것



백 인균 그림

죄악의 씨를 뿌리는 미국 영화

유고슬라비야를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서 떼 내여 제국주의 예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찌또 도당에 의하여 유고슬라비야에는 지금 미국식 생활 양식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였다.

그의 한 실례를 감수력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고슬라비야에서는 어디서나 《씰레지예》들에 대해서 근심 어린 목소리로 또는 격분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씰레지예》란 《란폭한 자》란 뜻으로 20 세 미만의 불량 소년들, 싸움패들, 망나니들, 깽들을 통털어 가리키는 이름이다.

지난 2월에 이 망나니들이 유고슬라비야의 수도 벨그라드에서 행패하던 한 실례를 영국 로이터 통신사의 특파원 시드니 • 웨일랜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싸움은 약 10 명의 씰레지예들이 아침부터 술을 처마시고 술집으로부터 비틀거리며 나와서는 때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리유 없이 시비를 걸었을 때 한 시민이 그들에게 돌아 가라고 말한 데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한 그 시민은 술병으로 머리를 얻어 맞고 인사불성이 되여 보도에 쓰러졌다.

씰레지예들은 다시 전차에 기여 올라 유리창을 깨뜨리고 승객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운전수가 그들을 말리려 하자 그는 구타를 당하고 한쪽 귀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이 란투에서 물어 뜯기운 것이였다.》

이러한 백주의 행패는 오히려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한 지방 도시인 반야 루카에서는 밤새도록 극적인 총질 싸움이 있었는데, 이 깽 싸움에는 21 명의 씰레지예들이 참가했는바 그 중 3 명이 죽었다. 이 3 명 중에는 1 명의 소년도 포함되여 있었다.

시드니 • 웨일랜드는 《벨그라드에서까지도 어머니들은 밤에 자기 딸들이 밖에 나가는 것은 허락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들은 술취한 악한들로부터 매복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유고슬라비야 사람들은 《이 씰레지예들은 벨그라드에서 항상 상영되고 있는 미국의 깽 영화나 서방 영화를 본 것을 흉내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은 천진란만하던 자기 아들 딸들로 하여금 추악한 악당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는 《미국의 서부 활극 카우보이 영화와 깽 영화 등》을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 영화들은 계속 상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벨그라드의 한 커다란 대통로에서는 약 300 명의 씰레지예들이 패를 나누어 가지고 백주에 대중적인 싸움질을 한 사건까지 생겼다. 유고슬라비야 정부 기관지인 《뽈리찌까》까지도 《마치도 밀림속에서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도 거리에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량 소년들》의 범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드니 • 웨일랜드는 유고슬라비야의 이 《불량 소년》들과 미국의 20 세 전 깽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씰레지예들은 옷차림을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무기로는 칼과 권총도 더러 쓰지만 술병과 쇠로 만든 가락지를 싸울 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위스키나 칵텔이 아니라 쎄르비야 오얏 브란데란 점이 미국의 20 세 전 깽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밖의 점에서는 미국의 깽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미국이 자랑하는 두 상품

 조 명식 그림

썩은 냄새 풍기는 미국

로 철

형식과 내용

공원 벤취에서 실업자 두 사람이 아이젠하워의 담화가 발표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갑—《금년 말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번영이 시작될 것이며…》 흥, 또 그런 흰 소리야! 달라진게라군 하나도 없군….

을—아닐세, 달라진게 왜 없겠나. 작년 이때 아이젠하워가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자네만 실업했지만 금년 봄에는 나까지 실업하고 지금 둘이서 이렇게 벤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지 않나…!?

찬란한 전망

실업자들이 직업 소개소 앞에 줄 지어 서 있었다.

그 옆 비야홀에서 자본가 두 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본가 갑—이 신문을 좀 보시오, 쏘련에서는 7개년 계획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6시간 로동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소.

자본가 을—흥, 로씨야는 대단히 락후했소, 저 우리 로동자들을 보오. 우리 로동자들은 하루에 한 시간도 일을 안 하고도 살고 있지 않소…?

강력한 번영

신문 기자—간판 제작소 소장 선생, 당신은 미국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으며 번영은 사라졌다는 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 제작소 소장—허튼 수작이오! 우리 제작소를 좀 보아도 알 것이오, 미증유의 대 번영이 도달했소.

사실 그의 제작소에서는 총동원이 되여 《공장 폐쇄》 《직업을 구함》 《한푼만 동정하십시오!》란 간판, 목걸게, 구호판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상승하는 사회주의, 하강하는 제국주의

최 영근 그림

미국식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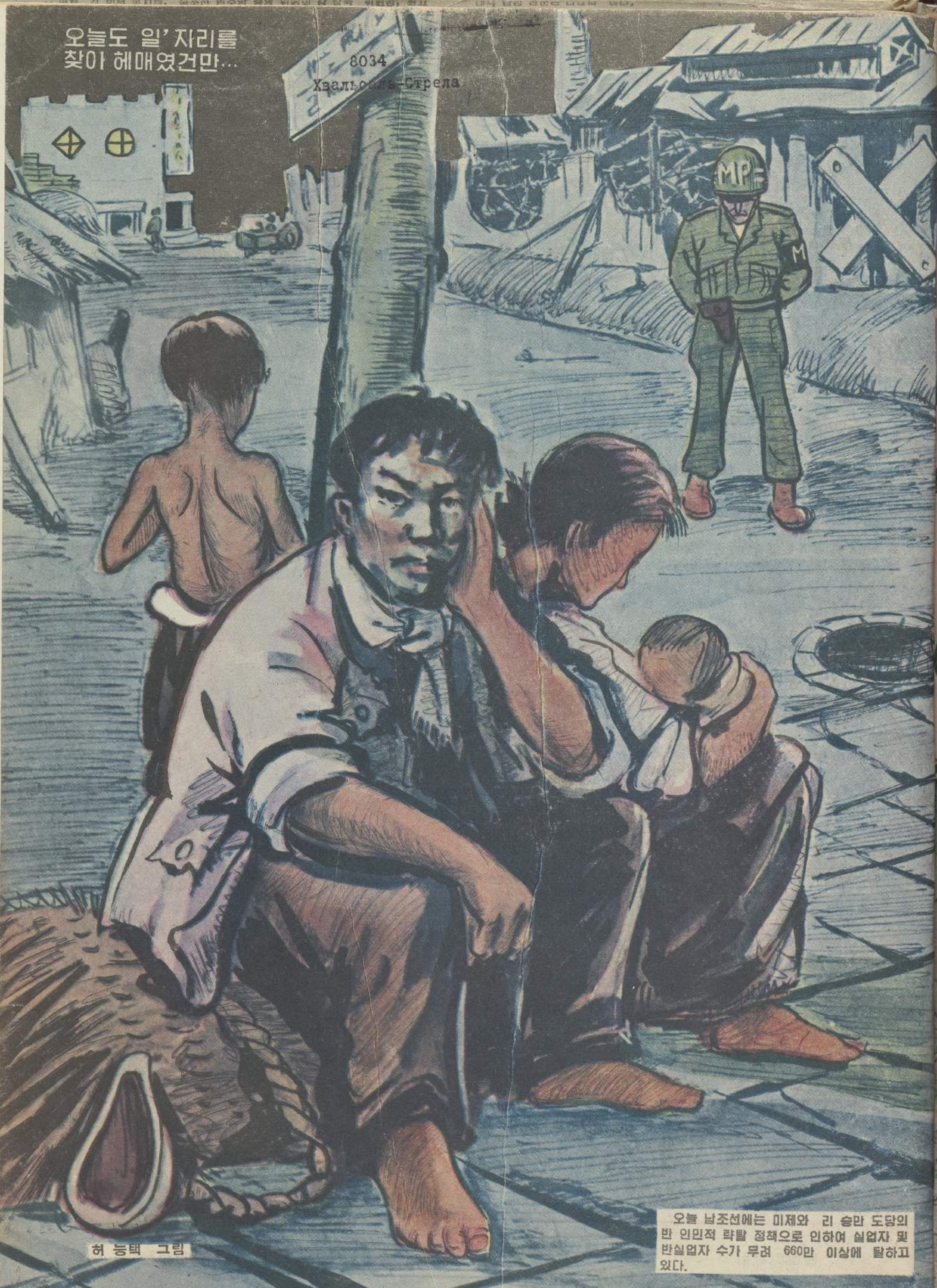
먹을 자유 배울 자유 거주할 자유 조 명식 그림

편집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4353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9. 5. 22

(값50전)

8034
Хвал[illegible]-Стрела



허 능택 그림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 인민적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자 및 반실업자 수가 무려 660만 이상에 달하고 있다.